

‘통합·쇄신’ 요구 빗발치는 민주당

당내 중진들 ‘이·박투톱’ 리더십 문제 제기 “계파 기득권 버리고 정권교체 위해 뭉쳐야” 대권 후보에 전권 부여 등 오늘 쇄신 의총

대통령선거를 100일 남겨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쇄신’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홍행’을 장담했던 완전국민경선제도는 ‘내홍’의 원인이 되고 있고 정권교체는 물론 대선후보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당권과 의원 10여명은 지난 5일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열어 ‘이해찬-박지원’ 지도부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명을 주도하는 수도권 의원 1명은 “‘이·박 체제’의 인적쇄신 없이는 대선후보가 선출돼도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며 “경선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환·이종걸(4선), 안민석·이상민·조정식(3선) 등 민주당 의원 40여명은 지난 7일 ‘쇄신의총’을 열어

는 의총소집안에 서명해 당에 제출했다. 서명을 주도한 한 3선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불통과 불신, 그로 인한 불화라는 ‘3불’의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지도부와 의원 개개인 사이의 소통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10일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최근 대선후보경선과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당내 분란에 우려를 드러내며 통합과 쇄신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과 쇄신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에게 당원과 국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한 소통을 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며 “계파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하는 데도 의견



민주당 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박병석 부의장은 이날 중진회의를 열어 지도부 후퇴론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쇄신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지도부는 자신까지 쇄신의 대상으로 삼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변화와 쇄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내에서는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에게 당 운영의 전권을 넘김으로써 후보가 단합과 쇄신을 주도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선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선대위 구성과 운영의 전권을 후보에게 위임

하는 결정을 최고위 차원에서 도출하는 방안이 논의대상이다.

이 같은 쇄신요구에 밀려 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당의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기부양 4조6천억 추가 투입

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간 100% 감면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정부가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내년까지 5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평균 10% 정도 줄어든다. 내년 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1.5%포인트 낮아진다. 주택 취득세도 연말까지 2%에서 1% (9억원 초과 4%→2%)로 감면된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때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도 50% 추가로 축소한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해 매달 고용주(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낮췄다.

현행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방법은 2인 이하의 ‘110만원+총급여의 2.5%’이며 개정안은 ‘210만원+총급여의 4.0%’로 바꿨다.

이로써 정부수입은 2조원(올해 1조5000억원, 내년 5000억원) 감소하며 가계 수지는 2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9월분 급여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8월의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한다.

승용차의 개소세는 2000cc 이하의 5%에서 3.5%로, 2000cc 초과 8%에서 6.5%로 각각 낮아진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의 개소세는 5%에서 3.5%로 인하한다. /연합뉴스

■ 법원 강제조정 어등산관광단지 어떻게 되나

‘테마파크 없는 골프장만’ 시민·사회단체 반발 클 듯

골프장 선(先) 개장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어등산 관광단지 분쟁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주)어등산리조트 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어등산 관광단지 분쟁은 매듭을 짓고 전면 정상화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특혜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은 애초 계획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골프장만 조성되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 측이 매입한 사업부지 중 43%를 광주시에 기부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2005년 당시 ‘어등산 관광단지 협약’에 명시된 테마파크와 함께 완공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특혜 논란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애초 어등산 관광단지는 육군 포병학교 포 사격장으로 폐허가 된 부지를 시민 휴식공간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골프장과 호텔, 테마파크 등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

유원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용할 경우 어등산 관광단지는 골프장만 개장된 채 애초 계획된 호텔 등 숙박시설과 각종 테마파크, 체육시설 개장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단지 전체 사업부지 82만3000평 중 사업자 측이 광주시에 기부할 35만6000평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도시공사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등산 관광단지가 사실상 ‘골프장’만 있는 반쪽짜리 관광단지

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앞서 어등산 관광단지 골프장 선(先) 개장 문제를 놓고 이러한 점을 가장 우려하며 골프장 개장 승인을 반대해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추진된 어등산 테마파크 사업은 광주시가 환경단체의 반발과 우려에도 추진한 사업”이라며 “어등산 테마파크 사업은 광주시가 분명하게 책임지고, 최초 기본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도 최근 성명을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는 사유지가 강제 수용된 만큼 특정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형태로 가야 한다”며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는 빛과 예술센터 및 디자인센터, 어린이 과학체험관, 디지털 자연사박물관, 야외공연장, 잔디 및 수변공원 등 13개 시설이 들어서는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와 특급호텔(250실),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각 50실), 콘도미니엄(220실) 등의 숙박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야외수영장과 헬스클럽, 인라인 및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게이트볼 장, 승마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상가시설 등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설마가 사람 잡는 법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의기술

IT, 자동차, 우주항공, 생명공학...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자랑하고 싶은 기술은, 사랑입니다.

어떤 기술보다 가치 있는 핵심기술, 영원히 변하지 않을 미래기술, 행복을 만드는 원천기술,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고객을 사랑하는, 사랑의기술.

삼성생명이 더 크게 키워 가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실천하는 사랑의 기술

- 열린 일자리로 행복을 만듭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열린 일자리 제공
- 아이 키우는 행복을 더 키워드립니다. 태아부터 세살까지 '세살마'를 육아교육 지원
- 여자의 인생을 행복하게 지켜드립니다. '여성행복연금보험'
- 고객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보합금을 지급합니다. 더 빠르고, 더 간편한 '고객사랑서비스'
- 소중한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저축보험'